

‘FA 최대어’ 박찬호, 4년 최대 80억원에 두산과 계약

프리 에이전트(FA) ‘최대어’로 꼽힌 유격수 박찬호가 두산 베어스와 손을 잡았다.

두산 구단은 18일 “내야수 박찬호와 4년 최대 80억원(계약금 50억원·연봉 총 2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 타이거즈의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한 박찬호는 뛰어난 수비력과 준수한 타격, 빠른 발을 겸비한 리그 최정상급 유격수다.

올해까지 프로 통산 1088경기에서 타율 0.266 23홈런 353타점 514득점 187도루로 활약했고, 올 시즌에는 134경기에 나서 타율 0.287 5홈런 42타점 27도루를 작성했다.

통산 1088경기 중 994경기(91.4%)를 유격수로 출장한 박찬호는 최근 5시즌 동안 유격수 소화인 1위(5481이닝)를 차지하며 뛰어난 내구성도 자랑했다.

박찬호는 KBO 리그에서 도루왕(2019·2022년)과 수비상(2023년·2024년)을 2차례씩 받았고, 지난해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도 품에 안았다.

두산 관계자는 “박찬호는 리그 최고 수비력을 갖춘 유격수로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 내야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자원이자 ‘리드오프’ 역할은 물론 공격적인 주루 능력까지 갖춰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박찬호는 “어린 시절 두산 야구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이 팀의 유니폼을 입게 돼 영광스럽고 벅하다”며 “좋은 계약을 해주신 박찬호 구단주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FA 계약을 맺은 박찬호.

사진=두산제공

이번 FA시장 최대어... 공수주 삼박자 갖춘 최정상급 유격수

두산 “내야 중심 잡아주고 팀 전체에 활력 불어넣어 줄 것”

이어 “어린 시절부터 내 야구의 모토는 ‘허슬’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플레이가 두산의 상징인 ‘허슬’과 어울릴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년 동안 응원해주신 KIA와 광주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박찬호가 두산에 합류하면서 지난달 지

휘봉을 잡은 김원형 감독은 ‘취임 선물’을 받았다.

지난 10년 동안 새 감독이 부임할 때마다 대형 FA를 영입해 큰 관심을 받았던 두산은 이번에는 거액을 투자해 박찬호를 데려왔다.

두산은 2015년 김태형(롯데 자이언츠 감독) 전 감독 부임 당시 투수 장원준과 4년 총액 84억원에 FA 계약을 맺었고,

2023년 이승엽 전 감독 취임 때는 FA 포수 양의지와 4+2년 최대 152억원에 사인한 바 있다.

FA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두산 유니폼을 입은 건 2015년 장원준에 이어 박찬호가 두 번째다.

A등급 FA인 박찬호를 품은 두산은 KIA에 보상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200% 또는 전년도 연봉 300%를 줘야 한다.

한편 박찬호가 두산과 계약하면서 FA 시장 개장 열흘 만에 1호 계약이 성사됐다.

뉴시스



구례 로타리클럽 회장배 청소년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성료

구례군 초·중·고생 120명 참여, 열기로 체육관 가득!

국제로타리 3610지구 구례 로타리 클럽(회장 김로 한창철)이 주최한 ‘제6회 구례 로타리클럽 회장배 청소년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베드민턴)’ 대회가 지난 16일, 구례중학교 지리관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는 구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초·중·고등부, 고등부(중고등부)를 남성부와 여성부로 세분화하여 총 6개 부문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구례군 초·중·고등학생 약 60개 팀, 총 120명의 학생 선수들이 참가해 평소 갈고닦은 베드민턴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특히, 이날 대회는 많은 학부모들이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펼치면서 구례중 지리관 체육관이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열기로 가득 차 말도 없이 열기를 감당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대회에는 최근범 구례군베드민턴협회 회장,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이현창 전남도의회 도의원, 선상영 구례군의회 의원(로타리 회원) 김유동 전남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구례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남구례교육지원청 김유동 교육

장은 “많은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스포츠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하며, 청소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로타리 부인회와 로타리 회원들이 경기 진행 및 간식 봉사 등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덕분에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다. 로타리클럽은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을 실천하며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참가 학생 A군(중학생)은 “비록 이번에는 입상하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내년에도 대회가 열린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꼭 참가하고 싶고, 다음에는 우승을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 로타리클럽 김로 한창철 회장은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 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의곡천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 중도금 무이자 +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GS건설 | LH/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나주시, 제5회 지회장기 노인친선 한궁대회 개최

어르신 20개 분회 참여... 건강·화합의 축제 분위기 속 성료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4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제5회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장기 노인친선 한궁대회’를 열어 어르신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한궁대회는 단순한 경기의 의미를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 확대와 분회 간 화합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 행사로 기획되었다.

한궁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하면서 매년 참가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20개 분회에서 16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오전 예선전을 시작으로 분회별 단체전과 남·여 개인전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정확한 손놀림과 집중력을 발휘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경기 결과 단체전 남자부는 노안면



분회, 여자부는 세지면분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개인전에서는 남자부 김대석 씨(동강면), 여자부 나덕임 씨(문평면)가 각각 기량을 인정받아 우승 컵을 들어 올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축사에서 “나주시가 추구하는 고령친화도시를 어르신 경기 결과와 단체전 남자부는 노안면

된다”며 “한궁대회와 같은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궁대회는 경기뿐만 아니라 분회 간 응원전, 동료 격려 등의 따뜻한 교류가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주/이명열 기자

추신수, 한국 선수 최초로 MLB 명예의 전당 후보 선정

내년 1월21일 결과 발표... 75% 이상 득표해야 입성

메이저리그(MLB)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추신수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이 한국 선수 최초로 MLB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올랐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18일(한국 시간) 2026년 명예의 전당 입성을 두고 투표에 들어갈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투표에서 잔류한 알렉스 로드리게스, 매니 라미레스 등 15명과 함께 신규 후보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신수 보좌역은 폴 해밀스, 라이언 브론, 알렉스 고든 등과 함께 새롭게 후보 명단에 올랐다.

2005년 MLB에 데뷔한 추신수 보좌역은 2020년까지 16시즌을 뛰었다.

시애틀 매리너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신시내티 레즈, 텍사스 레인저스를 거쳐 통산 1652경기에서 타율 0.275 218홈런 782타점 961득점 157도루 961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824를 기록했다.

MLB에서 10년 이상을 활약한 뒤 리그를 떠난 후 5년이 지나면서 추 보좌역은 명예의 전당 후보 입성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MLB닷컴은 신규 후보들을 소개하면서 추신수 보좌역에 대해서도 언급했

다.

매제는 “추신수는 2005년 시애틀에서 MLB 데뷔에 성공했으나,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08년 클리블랜드 시절부터였다”며 “그곳에서 추신수는 6년 동안 101홈런 100도루 타율 0.290, OPS 0.861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출신의 좌타자 추신수는 MLB 16시즌 동안 출루율 0.377을 기록했다. 이는 12.2%의 높은 볼넷 비율이 뒷받침된 수치”라며 “그는 단순히 볼넷만 잘 고르는 타자가 아니었다. 7시즌 동안 20홈런 이상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루 능력까지 겸비해 20홈런·20도루로 세 차례나 달성했다”고도 전했다.

/뉴시스